

낙엽의 계절 차 잘 마시려면...

아침 저녁으로 부는 차가운 바람이 따뜻한 차 한잔을 생각나게 하는 가을이다. 가족 혹은 지인들과 함께 차 한잔 나누기 좋은 계절에 차를 좀 더 맛있게, 멋있게 즐길 수 있는 법을 알아본다.

■ 물 끓이기-김 빼주면 잠냄새 제거

차물을 끓일 때는 100℃로 충분히 끓여준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소리가 점점 커지고, 조금 더 끓이면 소리가 잦아들게 된다. 이때 뚜껑을 열어 김을 빼준다. 이렇게 하면 물의 잠냄새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잠시 후 뚜껑을 닫고 물을 줄여 약한 뜸을 들인다.
 물은 수돗물보다는 생수가 좋고, 생수보다는 깊은 산속 바위틈에서 나는 오염되지 않은 물이 좋다. 산사에서 마시는 차가 맛있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차 우리는 순서-식힌물예 2-3분 적당

100℃의 끓는 물을 식힌 그릇(숙우, 熟盃)에 따르면 80-85℃가 된다. 물을 70-80℃로 식혀 차를 우려

야 제 맛이 난다. 물을 식히지 않고 차를 우려 마시면 쓰고 떼은맛이 난다.

물을 식히는 동안 다관에 차를 넣는다. 1인당 2-3g이 적당하며, 5인 기준으로 할 때는 차 숟가락 가득 세 숟가락(밥숟가락의 4분의 3) 정도를 넣는다. 차를 넣은 다관에 식힌 물을 따른다. 물을 부은 후 너무 오래두면 차 맛이 진해져서 제 맛을 낼 수 없다. 적당히 식힌 물이라면 2-3분 정도면 충분하다. 물이 뜨거울 수록 빨리 따라 마셔야 한다.

계절에 따라 차와 물을 넣는 순서가 다른데, 봄·가을에는 물을 다관에 1/3 정도 먼저 붓고 차를 넣은 다음 다시 물을 붓는다. 여름에는 물을 먼저 붓고 차를 넣고, 겨울에는 차를 먼저 넣고 물을 붓는다. 다관과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부

어 덩어려 놓는 것도 좋다.

■ 차 보관방법-음식과 섞이지 않은 서늘한 곳

개봉한 차를 변질되지 않게 하려면 습도와 온도, 광선, 공기, 냄새 등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차는 냄새와 습기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 냄새가 나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섭씨 5℃ 정도의 냉장고에 밀봉해 두면 오래 보존할 수 있지만 냄새의 흡착성이 강하므로 냄새나는 음식물과 함께 보관하면 차 맛이 떨어지고 잡내가 나게 된다. 또한 화장기 있는 손으로 차를 만지면 차가 화장품 냄새를 쉽게 흡수하게 된다. 말차는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차가 습기를 머금었다면 철사로 만든 체나 수 놓는 틀에 한지를 깔아 차를 붓고 약한 불에 고루 흔들어 말린다. 구수한 냄새가 나면 불에서 내려 식힌 후 차통에 담는다.

■ 다기보관-깨끗한 물로 행구 건조

처음 구입한 다기는 찻물에 30분 정도 푹 우려서 쓰는 것이 좋다. 흙 냄새를 없애고 깨끗이 소독하는 효과가 있다.

여름철 차를 마시고 난 후에는 다기를 잘 건조시켜 두는 것이 좋다. 장마철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 다기를 중성세제로 씻으면 도자기가 세

를 흡수하게 되므로 금한다. 다 쓴 다기는 깨끗한 물로 행구어 말려 놓는다.

■ 마시고 남은차, 티백차 활용

차를 마시고 남은 찻잎이나 티백차는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다.

▷악취 제거

우려 마신 티백을 잘 말려 신발 안에 넣어두거나, 냉장고나 화장실에 놓아두면 악취를 제거할 수 있다. 가루차를 탄 물을 적신 수건으로 냄새가 나는 부분을 꼼꼼히 닦아 주는 것도 냄새 제거의 한 방법이다.

▷녹차차량

심하게 피곤하거나 감기증상이 있을 때는 전신목욕이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 발목이 잠길 정도의 따뜻한 물에 가루차 2큰술과 왕소금 2큰술을 풀고 10분간 발을 담그고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무좀과 발 냄새가 심한 사람이라면 미지근한 물에 녹차를 진하게 우려낸 후 식초 두 큰술을 섞어 10분간 발을 담근다.

▷녹차냉찜질

공부와 업무로 인해 얼굴이 붓고 눈이 피로할 때는 '차 얼음'을 이용한 찜질을 해 보자. 물에 가루차를 풀어 얼음 용기에 얼린 '차 얼음'으로 눈 주위를 지압하면 머리가 상쾌해진다.

▷화분비료

차 찌꺼기는 단벌집과 아이노산, 무기질 등 식물에 필요한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마시고 난 티백을 그대로 화분 위에 얹어두면 천천히 분해되면서 화초나 나무의 좋은 비료원으로 활용된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도움말 주신분

소안다도문화원 박광금 원장, 다도 연구가 구자완, (주)태평양식특산물 홍보실



차맥 지킴이

고세연

(고세연 차가(茶家)이사장)

수북이 쌓인 서류 더미를 뒤적이며 자료를 찾고, 틈틈이 정리해 둔 노트를 다시 꺼내 읽는다. 얼마 전 배운 컴퓨터가 아직 손에 익지 않아 원고를 쓰는 일이 마음처럼 쉽지 않다. 지난해 '고세연 차가(茶家)'를 설립한 고세연(고) 이사장. 행형한 눈빛과 쉼없는 목소리를 잃지 않는 모습에서 30년간 한 길을 걸어온 이에게서 묻어나는 고집스러움을 느낄 수 있다.

1969년 故 명원 김미희 선생의 문하에서 차를 배우고, 명맥이 끊어지다시피 한 우리 차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애썼던 명원 선생을 도와 차를 연구하고 보급해 온 고 이사장은 '차계의 산증인'으로 불린다.

"제가 처음 차를 접했을 때만 해도, 다관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을 정도로 제대로 된 다구 하나 없었습니다. 이러한 때, 다도구 제작과 문헌을 통한 다법 되살리기에 힘쓰셨던 명원 선생님은 우리나라 차 문화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일이라면 선생님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다구와 다도 연구에 매진한 것이죠."

80년 명원다도 발표회와 두 차례의 차문화 학술발표를 준비했던 그는 89년에는 '한국 가루차회'를 설립하고 91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가루차 행다법을 발표하기도 했다. 명원문화재단 부설 명원다도연구소관 관장을 맡아 다도 보급에 앞장서기도 한 고 이사장은 바쁜 일정 틈틈이 '글

명원 선생 도와 차 연구·보급

89년 '한국 가루차회' 설립

"다구, 다기는 하나의 예술 작품"

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98년 우리 차의 원류와 다법을 소개한 <차의 미학>과 <다양의 축제>를 펴낸 데 이어 지난해에는 직접 제작한 다도구를 담은 <다도구의 미학>, <동다송>, <대관다론> 등의 다서를 우리말로 옮긴 <고세연의 고전다서>를 펴냈다. 명원다도연구소관 관장에서 물러난 것도 그동안의 연구를 책으로 펴내기 위한 집필 작업에 몰두하기 위해서다.

끊임없이 다구 연구에 매진해 온 고 이사장은 "차 도구는 찻잎으로 차를 만들기까지 제다와 행다로서의 다구와, 차를 마시기 위한 그릇으로서의 다구로 나눌 수 있다"며 "다구와 다기는 마땅히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한다.

"고려의 문인 이규보는 '벽돌화로의 숯불에 놓아 꽃무늬 오지사발에 손수 달이니 빛깔과 맛이 더욱 좋으니'라고 노래했습니다. 한 잔의 차도 이렇게 구색을 갖춰 마셔야 그 묘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또한 고 이사장은 "단순히 감정을 풀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과 덕을 쌓기 위한 방편으로서 차를 마셔야 한다"고 강조한다. 때문에 오늘날 대중화된 차 문화 역시 정신이 바탕을 이루지 않으면 한 때의 유행에 지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진정한 차인이라 비싼 다기와 비싼 차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정신을 추구하면서 남을 도울 줄 아는 여유와 인격을 갖추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차인의 길입니다."

여수령 기자



제2회 어린이 다례경연 대회

한국다도협회(회장 정상구)와 부산여자대학은 어린이들이 우리 전통 차문화를 익히고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2회 전국 어린이 다례경연대회'를 개최한다.

10월 25일 오전 11시부터 부산여자대학 다도관에서 열리는 이 대회는 유치부·초등부부터 나

누어 진행되며 입·퇴장 순서와 한복 입은 모습, 절하는 모습, 다례시연, 차 마시기 등을 심사한다.

다기를 놓는 위치는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어떠한 행다법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개인(1명)과 단체(2-8명)로 나누어 진행되며 시간은 12분 내외이다. 참가비는 없으며 신청접수는 10월 15일까지. (051)850-3085

'차문화 대학원' 신입생 모집

한국차문화협회(www.koreatea.or.kr)는 '차문화 대학원(이사장 이규례)'을 설립하고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수업은 10월 16일부터 2004년 8월까지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차생활 예절 지도

전문사범' 자격증을 주며, 이수자 중 심의를 거쳐 (사)규방다례 보존회에서 발급하는 무형문화재 제11호 규방다례 일반전수생 인증서를 발급한다. 접수는 9일까지 협회 사무처로 해야 하며, 입학원서와 한국차문화협회 사범자격증 사본, 사범활동 경력서, 사진 3매 등이 필요하다. 교육 장소는 협회 교육장이고 수강료는 60만원이다. (02)701-0475

스님!! 좋은 달력을 추천합니다.

매년 똑같은 달력에 식상 하셨습니까?
 유명 작가의 작품으로 최고급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마하몰 www.mahamall.com.kr
 주문전화: 02)732-1520

<p>전각 수인(手印) 310mm x 310mm</p>	<p>전각 금강경 310mm x 310mm</p>	<p>석불(石佛) 310mm x 310mm</p>	<p>사진 연화(蓮花) 310mm x 310mm</p>	<p>유화 연화(蓮花) 310mm x 310mm</p>
------------------------------------	---------------------------------	---------------------------------	------------------------------------	------------------------------------

※ 100부이상 주문시 사찰명 무료인쇄

마하몰: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B1 T: 02)732-1520 입금계좌: 농협 053-12-113210 (예금주 하동규)